

# 이율곡(1536-1584)의 자연관\*

— 策文을 중심으로 —

곽 신 환\*\*

## 目 次

- I. 율곡철학 연구에 있어서 策文의 가치
- II. 易數 天道 節序—實理 自然觀
- III. 鬼神 壽夭 神仙 祈禱의 문제—實心 自然觀
- IV. 實理와 實心の 만남—자연과 인간의 和諧
- V. 맺는 말

## I. 율곡철학연구에 있어서 策文의 가치

이 논문은 이이(李珣 1536-1584)의 易學과 이에 근거한 자연관을 그의 책문을 중심으로하여 논구하려는 것이다. 율곡철학의 자연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율곡사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그러하였듯이 그의 이기-심성에 관한 전문적 논술에 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동안 율곡철학 연구에 있어 별로 다루지 않았던 율곡의 策文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책문은 주로 과거시험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사안 특히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시험의 형식과는 달리 논문의 형태로 되어있다. 현존 율곡전서에서 우리는 다른 성리학자들의 경우

---

\* 이 논문은 1991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人文大學 哲學科 教授

와는 달리 많은 책문을 볼 수가 있다.<sup>1)</sup>

율곡의 저작 가운데서 책문은 대체로 그의 청장년기의 저작으로 짐작된다. 이흠번 장원을 하였다든 말이 있듯이 율곡은 여타의 학자들과는 달리 과거에 응시 회수가 많았고 그때마다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당시 賜假讀書制 즉 학자 출신 관리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휴가를 주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서 讀書堂 湖堂 등에서 연구하는 틈틈이 책문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율곡의 경우 과거에 응시하여 지은 것도 있지만 이같은 사가독서를 통하여 발표한 책문이 다수인 듯하다. 아무튼 율곡전서에 책문이 많은 것은 다른 학자들 문집의 경우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의 하나이다.<sup>2)</sup>

그런데 천도책과 역수책 등 몇편을 제외한 이들 책문의 대부분이 율곡전서의 본집이 아닌 습유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점은 율곡전서의 편찬자들이 율곡사상을 다룸에 있어서 책문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책문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근래의 율곡학 연구자들도 이들 책문의 내용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1) 天道策 易數策 貢路策 文武策 死生鬼神策 軍政策 神仙策 祈禱策 節序策 壽夭策 時弊七條策 醫藥策 天道人事策 誠策 化策 文策 盜賊策 등 책의 형식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와 孔孟言性道軍旅疑 孔子言禮從周疑 四子言誠疑 四子言不同疑 荷列顏閔心跡疑 등 책이라 명기하지 않았으나 그 형식에 있어서 책문과 동일한 것 등 22편에 이르고 있으며, 답안이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낸 시험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글이 또한 6편이 된다.
- 2) 이점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여온 부분이다. 참고로 보면 조선조 학자들 가운데 선초의 정도전은 「治民之道」 「濟民」, 권근은 「至治之法」 「禮樂制度」 「大學治人之道」 「聖賢君子之志」 「爲國家長久之策」 「爲治之道」 등의 출제문이 있다. 한국성리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6세기의 학자들 가운데 高峯 기대승의 경우 책문이 그 제목을 잃어 버린 단 하나 밖에 볼 수 없고 퇴계의 경우 「因書求道」 「土地所尙」이 있으며 河西의 경우 「古今治亂之機」 「詩經考證」 「異端」 「道學正傳」이 있고 남명 曹植의 경우는 「禦倭之策」의 출제문이 있다. 18세기 실학자의 중심인물인 다산 丁若鏞의 경우는 「地理策」 「孟子策」 「十三經策」 「文體策」 「中庸策」 「人才策」 「漕運策」 「荒政策」 「農策」 「弊學」 「戰船策」 등의 책이 있고 출제문으로는 「律度量衡」 「錢弊」 「儒」 「竹」 「東西南北」이 있다. 이처럼 각 시대에 따라 또 개인에 그 특성을 볼 수 있다.

율곡의 책문들은 율곡사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지성계의 학적 수준과 관심사 등 학풍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책문의 내용이 그대로 율곡의 독창적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시대의 학문적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책문의 물음은 당시 학계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요, 그 답안은 그 문제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보편적 이해를 학문적으로 최고의 수준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 자신의 관심사라기보다는 당시 학계 일반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책문의 내용은 율곡의 문집에 수록된 것에 한정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성리철학적 주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곡전서에 수록된 22편의 책문 가운데 천도책 역수책 귀신사생책 신선책 기도책 절서책 수요책 의약책 천도인사책 성책 화책 등 11편의 성리학적 자연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다. 이같은 주제가 당시 시험관에 의하여 국가 경영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또는 사가독서의 과제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학문적 관심사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의 지식층에 제대로 수용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 사이에 술한 열면 논변이 진행되는 등 아직 사상적 혼동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천도책과 역수책 천도인사책 성책 화책 등 성리학적 세계관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물음들과 특히 귀신사생책 기도책 신선책 수요책 절서책 의약책등 도가 사상 및 속설 신앙과 관련이 있는 물음이라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sup>3)</sup> 즉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성리학적 입장 또는 조선왕조 지배 이념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당시의 정신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요, 아울러 정부 또는 유학자 집단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신 타파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이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요, 책문은 다른 장르의 글과는 달리 비교

3) 여타의 주제는 외교에 관한 朝貢策, 문반과 무반의 조화를 다룬 文武策, 군정에 관한 사항인 戰政策, 도적이 들끓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인 盜賊策, 시폐 7조항에 대한 대처 방안등 유교 정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비교적 실무적인 문제와 경학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적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율곡의 책문 연구는 필요한 일이다.

## II. 易數·天道·節序—實理 자연관

22편의 책문에서 주로 성리학의 자연관과 관련된 책문으로 역수책 천도책 사생 귀신책 절서책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책문의 머릿말은 한결같이 그가 성리학적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다<sup>4)</sup> 이제 이들 책문에서 제기한 물음들과 이에 대한 성리철학적 답안을 검토 정리하여 보자.

易數: 역수책은 역학의 성립과 그 본질 역사적 전개등에 관한 11개의 물음들과 이에 대한 답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역학이 자연세계의 법칙과 인간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을 다룬 것으로 이해되어 오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율곡

- 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근원적 위치가 혼연히 이루어지고 이와 기가 유행하는 것, 그리고 이 큰 천지와 만물의 무쌍한 변화가 모두 이와 기의 오묘한 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와 더불어 역을 논할 수 있습니다.”(易數策의 서두)  
 “저 위의 세계(上天)에서 일어나는 일은 감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데(無聲無臭), 그 이는 지극히 은미하나 그 상은 지극히 현저하니 이를 아는 사람이라야 더불어 천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天道策 서두)  
 “기는 모이고 흩어짐이 있으나 이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모이고 흩어짐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처럼 큰 것도 역시 한계가 있으나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사물과 나는 모두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음과 삶의 이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死生鬼神策 서두)  
 “하늘은 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을 도와 주므로 덕을 따르는 자는 길하고 덕을 거스리는 자는 흉한 것이니 하늘과 사람의 감응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天道人事策)  
 이상은 성리학적 주제를 다룬 물음에 대한 답의 머릿말들로서 역시 理氣論, 顯微論, 기의 聚散論, 天人相應論등 성리학의 이론틀 안에서 논지를 펼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들이다.

의 입장을 비교적 선명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한다. 역수책의 첫번째 물음은 태초 혼돈 상태에서부터 천지가 개벽되면서 만상이 거기에 매이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운동은 대체 누가 주재하였는가이다. 즉 우주의 개벽은 누구에 의하여 일어났는지 조물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하여 율곡은 거대한 천지와 자연의 무쌍한 변화가 모두 이와 기의 오묘한 작용일 따름이라는 성리학적 전체 위에서 답하고 있다. 즉 수많은 종류의 사물 그리고 그 무쌍한 변화가 모두 오행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과, 오행이라고 하나 그것은 음과 양의 원리에 지나지 않으며, 음과 양이라고 하나 그것은 결국 태극의 양면일 따름이라는 성리학적 기본 전체 위에서 율곡의 자연관은 전개되고 있다.

율곡은 ‘형이상은 자연의 이치이고 형이하는 자연의 기운’이라고 하는 전체 위에서 ‘理가 있으면 氣가 없을 수 없고 기가 있으면 만물을 생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발동하는 것은 氣요 발동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 천지가 개벽함에 만물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그렇게 된 것은 기운이고 그렇게 되게 한 것은 理로 규정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알 수 없다는 말은, 주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주재자는 없다.’는 뜻이다. 천지에 주재자가 없다는 것은 천지는 곧 ‘스스로 그렇게 되었을 따름’(自然)이라는 뜻이다. 혼돈한 기운을 천지의 시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한 혼돈의 기운 이전에 몇 번이나 천지 만물이 모이고 흩어졌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 되풀이 됨이 한계가 없고 어디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의 단서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sup>5)</sup> 이처럼 천지의 개벽에 있어 주재자에 관한 율곡의 입장은 선명히 드러나 있다. 즉 어떤 인격적 형태의 조물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현 천지의 개벽이 결코 일회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비록 조물자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실상 이치를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율곡은 또한 河圖는 천지 자연의 象, 洛書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마땅히 행할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하도는 온전한 것을 위주로 하여 常數의 본체를 보여준 것이고 낙서는 변화를 위주로 하여 變數의 작용을 보여준 것이라는 송대 역

5) 그는 무극은 바로 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학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 여기에는 자연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또한 자연의 세계를 수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역학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며 수에 대한 이해가 자연을 파악하는 중요 수단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sup>6)</sup>

울곡에 있어서 역학은 단순히 주역의 경문과 십익을 탐구하고 궤도를 연구하며 상수를 밝히고 점괘를 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역학은 학문 그 자체이다. 울곡은 ‘저 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것은 역의 지극히 은미함이고,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는 것은 역의 지극히 현저한 것이며,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운 것과 해와 달이 밝은 것 사람과 만물이 번성한 것 산이 우뚝서고 내가 흐르는 것은 역의 작용이고, 하늘이 높은 까닭 해와 달이 밝은 까닭 사람과 만물이 번성하고 산과 내가 솟고 흐르는 까닭은 모두 역의 본체라고 규정함으로써 易理의 隱顯, 體用을 모두 자연현상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역의 도는 체와 용이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고, 광대하게 드러난 세계와 정미하게 숨은 세계 사이에 아무런 틈도 없는(顯微無間) 것이다. 따라서 대상 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식 능력을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그 이치를 볼 수 없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실제의 내용을 이루어 낼 수가 없다. 울곡에게 있어서 『대학』에서 말하는 격물치지의 학과 성의 정심의 학은 결코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역학의 하나일 따름인 것이다. 역학을 이렇게 넓게 이해한다면 역학의 규정을 어떻게 내려야하느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天道: 천도책에서는 자연현상 일체에 관한 성리학적 이해의 체계를 보여준다. 묻는 자는 자연의 운행 원리, 주재자의 유무, 자연현상과 인간의 일들의 상호 관계등과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그안의 만물이 다 잘 자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6) 그러나 우리는 울곡에게서 그 수리철학적인 또는 수에 대한 강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그가 눈꽃은 6각형이고 자연세계의 꽃은 그 화판이 5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중에 눈은 陰物이어서 음수인 6을 취하였고 꽃은 陽物이어서 양수인 5를 취한다는 지적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한다. 물음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의 운행에 있어서 빠르고 더딤이 있는 까닭, 일식과 월식이 있는 까닭, 바람은 어디서 불고 어디로가며 혹 미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까닭, 구름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천둥 우뢰 벼락 안개 서리 이슬 비 눈 우박등 자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자연 과학에서 답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리철학적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 율곡은 이들 물음이 기본적으로 격물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다음, 유학자는 ‘자연에 현저하게 드러난 현상을 통하여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천의 지극한 이치를 탐구하여 간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현상은 氣, 그 현상의 까닭은 理라는 성리학의 기본 골격 안에서 낱말이 해명한다. 율곡이 지닌 견해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천지의 모든 조화는 그 근본이 하나의 음양일 따름이다.
2. 천지 사이에 있는 일체의 형상을 지닌 존재자들은 오행의 정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어그러진 기를 받은 것, 음양이 서로 격돌하는 가운데 생긴 것, 음양 두 기운이 발산하는 데서 생긴 것의 차이가 있다.
3.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바로 理이다.
4. 理에는 정상인 경우와 변괴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사람의 마음은 곧 천지의 마음이니 천지의 정상과 변괴를 단순히 하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율곡의 천도론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은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은 “음기가 영기었는데 양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람이 된다. 천지에 가득한 것이 기 아닌 것이 없으니 음기가 영기는데 정하여진 곳이 없다면 양기가 흩어지는데도 정하여진 경로가 없다. 애당초 출입이 없다”<sup>7)</sup>이고, 서리와 이슬이 형성되는 까닭으로는 “양기가 퍼지는 계절에 이슬로써 만물을 적셔주는 것은 구름이 하는 일이요, 음기가 참담하게 되면 이슬이 서리로 맺혀 초목을 죽이게 된다”<sup>8)</sup>이다. 이처럼 봄의 이슬과 가을의 서리를 양기와

7) 율곡전서 권14 잡저 天道策

8) 위와 같은 곳

음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천지와 만물은 본디 하나의 기가 운행 변화하여 만가지로 달라지는 것으로서, 나누어 말하면 천지 만상이 각기 하나의 기운이지만 합하여 말하면 천지 만상이 동일한 기운이라고 한다. 해와 달 별등은 오행의 바른 기운들이고, 흐린 날씨, 흙비, 안개, 우박등의 자연 현상은 천지의 어그러진 기운들이며, 천둥 번개 벼락등의 현상은 음과 양의 격발된 기이고 바람 구름 비와 이슬은 음과 양의 화합이다. 이처럼 구분은 서로 다르나 이치는 동일하다고 한다.

一氣—陰陽 음양의 상호 격돌—천둥 번개 벼락  
음양의 상호 화합—구름 비 이슬  
五行—精氣—일 월 성 신  
여기—흐림 흙비 안개 우박

理—五常의 理—음양 두기의 조화—일월이 운행의 바른 궤도를 잃지 않고, 비나 눈이 계절에 맞고, 바람 구름 번개 우박이 화기속에 들려있는 것  
變怪의 理—음양의 부조화—일월의 운행이 바른 궤도를 잃고 바람 구름 우뢰 번개가 어그러진 기운에서 나옴

그러나 율곡이 속설로 전하여오는 민간 신앙의 내용 일체를 음양 이기론으로 천착하여 억지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율곡은 만물의 정기가 위로 올라가 별이 된다는 것 등의 속설은 천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단호히 배척한다.<sup>9)</sup>

자연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율곡은 이기론 음양론등 성리철학적 이론 틀의 철저한 적용을 그 특색으로 하지만 한편 한대 이래의 天人相應說을 견지한다.

예를 들면 일식현상을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약한 것으로서 하극상의 징조이며 이는 주로 난세에 많이 생겼다는 설명등이 있다. 下剋上이라고 하는 인사의 어그러짐이 자연의 어그러짐을 초래한 것이라는 천인상응설적인 시각이 들어 있다. 景星과 彗星의 출현 현상에 대하여도 율곡은 경성은 요순의 태평시대에 출현하였고 혜성은 춘추의 혼란시대에 출현하였다고 하며, 사람이나 물건에 벼락치는 것을 사악한

9) 위와 같은 곳

기운이 모인 사람이나 물건을 음과 양의 정기인 뇌정이 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일로 본다. 군사를 일으키거나 옥사를 결단하였을 때 비가 내린 까닭에 대하여는 원한이 기운 즉 冤氣는 가뭄을 부르는 원인이며 원기를 풀어주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크기가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 생물을 죽이기도 하는데, 우박은 어그러진 여기로서 음이 양을 위협하는 것인데 생물을 죽일 정도의 상태는 무력을 함부로 써서 禍의 기초를 만든 왕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식이나 월식이 하극상의 징조라거나 또 반드시 난세 말세에 많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다. 다만 일식 월식에 의하여 민심이 흉흉하여지고 민심의 흉흉함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여 그 결과 왕조가 바뀌는 등의 현상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연적 일치로 보이는 이러한 사건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성의 결여라는 차원에서 처리할 일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 이래의 천인상응설적인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믿음과 기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연 현상 가운데 일상의 법칙에 어그러진 것 -예컨대 景星이나 彗星등 성변이 나타남과 오유월에 서리가 내림 등-이 적지 않은데 이는 천기가 어그러진 탓인가 아니면 인사가 잘못된 탓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율곡은 이치에는 정상한 것도 있고 변괴도 있는데 사람의 기는 곧 천지의 기운이어서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피력한다. 理의 정상과 변괴는 천도 뿐만 아니라 인사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천지의 변괴는 탓할 수 없는 것이며, 탓하여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인사를 살펴 잘못을 바로 잡는 것 뿐이다.

‘사람과 천지의 기는 하나이니 사람의 기가 바르면 천지의 기도 또한 바르게 된다.’ 성리학자들의 전제는 자연의 변괴를 인심의 순화를 통하여 바로 잡자는 뜻에 그 강조점이 있다. 왕조시대 유가의 사상 구조 안에서는 왕의 위치가 정치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유학자들은 왕이 자기 마음을 바로하여 조정을 바로 잡고 이로 발단하여 사방을 바로 잡으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된다는 전통적인 천인상응설의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 유가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행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요, 자연의 이변을 하늘 뜻 자체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 당시의 천지니 만물이나 하는 사고 자체가 왕을 중심으로하는 사고였던 만큼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잘 자란다’<sup>10)</sup>는 것은 왕이 덕을 쌓은 공효를 드러내려는 귀절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대 이래의 천인상응설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이다. 요컨대, 율곡에 있어서 천도책은 자연현상 일체를 성리철학의 이기론 특히 음양을 중심으로한 이론적 설명 그리고 천인상응설로 설명한 것이다.<sup>11)</sup>

천인상응설에 관한 율곡의 입장은 그의 「천도 인사책」<sup>12)</sup>에 보다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문에서의 물음은 천도의吉凶과 인사의 順逆은 똑같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법인데 더러는 인사는 순한 듯한데 천도는 역한 듯하고 인사는 역한 듯한데 천도가 도와 주는 듯한 경우가 있다.<sup>13)</sup> 율곡은 하늘은 ‘사사롭게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덕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라는 전통적 신념으로 답을 대신한다. 인사는 순한 듯한데 하늘이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인사는 거슬리지만 하늘이 도와 주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마치 ‘지혜있음이 형세를 타는 것만 같지 못하고 농기구를 갖고 있음이 제철을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한 것’과 같다. 때와 형세를 얻은 사람은 거슬린 듯하여도 성공을 하는 것이 마치 쇠는 무겁고 깃털은 가벼운 것이지만 한수레의 것은 한푼의 쇠보다 무거운 것과 같이 사람에게 따라서는 명분은 순하나 일은 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명분은 약하나 때를 얻은 자가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성패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분의 순역 못지 않게 그 때와 세력이 중요한 인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비록 성패가 그 역과 순에 관계없는 경우도 있으나 하늘과 인간은 근본에 있어서 똑같은 이치이므로 인사만 극진하였다면 응하지 않을 천리가 없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율곡의 입장이다. 하늘이 하

10) 이는 中庸 一章 머리에 나오는 귀절이다.

11) 이율곡의 천도책을 여현 장현광의 「우주설」과 대비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다. 장희익의 「조선성리학의 자연관」(『과학과 철학』제2집 통나무 1991년)13-47쪽을 볼 것.

12) 율곡전서 습유 권 6잡저

13) 예를 들면 명분도 바르고 논리도 갖추었던 촉한의 유비가 한왕실을 회복하지 못한 까닭과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진의 시황제가 천하를 병탄한 등의 경우를 묻는 것이다.

는 일은 보통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 맡겨 있는 일만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이 믿고 따라도 좋을 만큼 개연성은 마련되어 있다.

천도론에서 율곡이 취하는 이기론적 해명은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정신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기론의 체계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아직 전통적인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매우 불합리한 설명도 없지 않다.

節序策: 한대 이래로 천지를 음양으로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동서남북중의 방위에 배치하여 왔는데 이를 유학사상의 공간적 구현이라 한다면 오상을 계절에 배치하거나 유학사상의 어떤 덕목을 각각의 절서에 배당하는 것 예를 들어 동지에는 관문을 닫아걸고 여행과 상거래 행위를 삼가하게 하는 등은 그 시간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月令 또는 農家月令歌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농사의 때를 어기지 않게 하는 동시에 은연중 유학적 윤리와 근로 사상을 고취한 전형적인 것이다. 이처럼 유학적 가치의 시간적 구현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 바로 절서책이다.<sup>14)</sup>

절서책은 일년 12월 중에서 각각 중요한 절기의 유래와 그 의의를 알아보는, 일견 상식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음은 12간지에서 해 자 축 인의 달 가운데서 어느 달을 정월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정월 대보름날은 어느 시절에 시작된 풍속인지 단오절의 풍속의 유래는 무엇인지 7월 7석에 견우 직녀가 만난다는 설은 근거가 있는지 등의 각 절기에 따른 행사의 의의와 유래를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율곡은 역시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는 유가의 절서야말로 성인의 제작에 의한 인도의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라고 한다. 즉 하나의 근원적인 기운이 우주 사이에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유행하면서 양기로써 만물을 화생시키고 음기로써 만물을 성숙시키는 것은 천리이고, 천명을 본받아 음양의 이치에 순응하며 우러러 천문을 보며 굽어보아 지리를 살펴 조화에 묵묵히 합치하는 것을 인도라고 규정한다. 사계절의 차례를 나누어 겨울과 여름의

14) 율곡전서 습유 권5 節序策 참조

춡고 더운 절기를 나누며 울력에 관한 책과 명절에 관한 호칭을 제정한 것이 바로 인도에 해당한다. 봄에 만물을 화생시키는 힘이 있으나 저절로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봄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며, 가을이 만물을 성숙시키나 저절로 가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가을이 되는 것이니 절서는 그 스스로 절서됨을 알지 못하고 성인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절서에 명칭이 있게 되었다. 만약에 성인이 없었다면 천기의 운행은 인사에 아무런 관여됨이 없게 된다. 음양의 기후를 보고 일하고 휴식하며 일월의 운행을 울력으로 만들어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모두 자연의 이치로써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다.

율곡은 당시 조선에 성행하는 절서에 관한 각종 습속이 모두 유가 사상에 기초한 것, 즉 천도에 상응한 인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풍속 중의 더러는 옛 유가 성인이 만든 제도에서 유래한 것도 있으나 풍속의 와전된 것도 있고 사람들의 사치에 근거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와 관련된 것, 조상숭배의 정신에 어긋난 것, 그리고 성리철학적 원리에 어긋난 것,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도가적인 유래를 갖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망령된 지식 망령된 발언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참으로 천인 합일의 길은 옛 성인이 오로지 하늘을 본받고자 하였듯이 자연의 원리, 실리를 본받는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논한 율곡의 천도, 역수, 절서등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른바 그의 실리론—만물의 화육을 가능케 하는 이치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자연관은 한마디로 실리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死生·壽夭·祈禱·神仙의 문제—實心の 자연관

책문 가운데는 속설 민간 신앙의 내용 문제, 주로 민간 전승 차원의 관심사들을 성리학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책문으로는 귀신사생책 신선책 기도책 수요책 의약책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책문에서의 문제와 답들은 대체로 서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한다

면 귀신의 유무, 기도의 효험 유무, 생사는 어떻게 결정되며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壽夭가 조절될 수 있는지, 또 기를 기르는 한 방편으로서 의약의 문제를 유가는 어떻게 보는 지를 묻는 것들이다.

이러한 물음들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율곡 당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었으리라 본다. 아직 성리학적 세계관이 체계적으로 정착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도교의 경우는 나름의 해답체계를 선명히 제시한데 반하여 도교사상을 이단으로 또는 무속 음사등을 미신으로 규정하여 타파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유가의 입장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선명한 해명체계를 갖고 있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일반 민중은 물론이요, 유학자들에 있어서조차 귀신, 신선, 기도의 효험여부, 그리고 수요의 문제는 실제생활에서 매우 비중있는 주요 관념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특히 고려조에 있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불교적 도교적 그밖에 무속적 해답체계가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유포 확산되어 나갔고 신념화 신앙화 되어 있었던 만큼 이들을 미신으로 규정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해답 체계의 제시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율곡은 이같은 물음들에 대하여도 성리철학의 입장에서 논지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제 이들 문제에 대한 율곡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鬼神死生の 문제: 일반적으로 귀와 신, 생과 사의 문제에 관한 성리학자들의 설명은 이기론과 음양론에 의한 자연철학적 설명이다. 즉 귀와 신, 사와 생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기이며 굴신 취산의 국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각각 음과 양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귀신 사생책에서는 정치한 성리철학적 입장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속설신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귀신을 귀와 신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아니라 속설에서의 분화되지 않은 귀신을 말한다.

사람과 만물은 理에 의하여 태어나고 이에 의하여 죽으며 이는 삶과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기는 살아있을 때만 있고 죽으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귀신이 나타나는 일은 순리가 아닌 것이다. 기는 시한성을 지니고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말며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영원불변하는 것은 오직 이일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곡이 귀신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순리는 아니지만'<sup>15)</sup>이라는 말에서 이를 간취할 수 있다.

만일에 죽은 다음에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설이 허황한 것이 되고 죽은 뒤에 지각이 없다면 죽은 조상의 영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인데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물음에 대하여는 '사람의 지각은 정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정기가 흠어지면 어떤 물체도 지각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미 지각이 없다면 비록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이니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설은 저절로 잘못됨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유가에서의 제사지내는 것은 이치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아직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비록 정기가 흠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정성과 공경이 극진하게 되면 조상의 혼령과 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 조상 즉 죽은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미 그 기가 아주 흠어져버린 경우라도 그理는 멸망한 것이 아니므로 감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의 감응성을 긍정한 설명 방식이다. 그러나 이점에서 그는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악귀가 있다'는 신앙이나 또는 원혼을 달래주는 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즉 백유가 악귀가 되자 자산이 그를 위하여 사당을 세워준 일과 무서운 악귀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진나라의 경공이 횡사하였다는 고사에 대하여 이를 불합리한 속설이라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율곡에 의하면, 정나라의 백유는 이미 그 지위가 높고 또한 일족이 적지 않아 그 기가 강성한데 그의 죽음이 비명이었으므로 그 기가 나타나 여귀가 되었던 것이고, 진나라의 조씨는 국가의 훌륭한 신하였는데 원통하게 죽었으므로 그 기가 격앙하여 원혼을 품은 귀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여 악귀 원혼의 이치를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귀와 원혼은 그 한을 풀어줌으로써 그 맺혔던 기가 풀어져 깨끗이 흠어

15) 율곡전서 습유 권4 잡서 死生鬼神策 참조

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악귀나 원혼의 존재에 대한 속설 신앙을 용납하는 듯한 태도를 율곡에게서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의 실제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아 있는 자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귀 원혼이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해원상생의 마음가짐에 의하여 그것은 결국 풀어져 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속설 신앙의 한 내용으로서의 악귀 원귀 또는 조상 혼령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성리학적 훈련을 받은 율곡이라하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귀신의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는 다른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명한 맛을 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기본입장은 분명 ‘생과 사는 기의 모이고 흩어짐이요’, 지각은 기의 일이어서 죽어 정기가 흩어지고 나면 지각 작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일은 허황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기는 흩어짐에 있어서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흩어짐의 속도에 있어서의 느리고 빠름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로되 혹 아직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기운이 있다면 남아 있는 사람의 정성에 의하여 그 기의 흩어짐을 혹 늦출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氣 상호간의 감응의 원리에 의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長壽와 夭絶의 문제: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설명이다. 이 물음에 대하여 율곡은 성리학의 理 氣 數의 상호 연관개념으로 설명한다.

“理는 氣에 부쳐 있는 것이요, 기는 이에서 나온 것이요, 數는 氣에 인연한 것이니 이른바 기라는 것은 이의 기요, 이른바 수라는 것은 기의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기의 후박은 배양할 수 있지만 수의 장단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사께서 물으신 수요의 설도 역시 理 氣 數 이 세글자의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sup>16)</sup>

16) 율곡전서 습유 권 5 壽夭策의 머리 참조

그에 의하면 이 기 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理는 氣에 붙어 있는 것이요, 기는 이에서 나온 것이요, 수는 기에 인연한 것이다. 기는 리의 기요, 수는 기의 수이다. 命의 장단은 각자가 타고난 기의 후박에 따르지만 기의 후박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배양은 가능하나 그 기에 따르는 수의 장단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주 안의 만물은, 합하여 말하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기이고, 나누어 말하면 천지만물은 각기 하나의 기를 갖고 있다. 기에 있어 후함과 박함의 차이가 있고 수에 있어 길고 짧음이 있는 것은 바로 '나뉘어 달라짐' '분깃의 다름' 때문이다.

수요에 관하여는 대체로 세가지의 설명방식이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이른바 數를 위주로 하는 설명방식이다. 즉 천지의 수는 一元, 인간은 一世, 초목은 卅月 하루살이는 하루를 각각 그 수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이 수에 의한 설명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기있는 설명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조물주가 만물을 만든 후에 각각 그 수명을 할당하였는데 개는 몇년 뱀은 몇년 사람은 몇년식의 할당하였다는 우화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율곡은 비판적이다. 사물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요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수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의 수명을 수의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은 수가 기에 근거한 것인줄 모르는 데서 나온 견해라는 것이다.

다음은 氣를 위주로 하는 설명방식이다. 예를들면 상고시대는 기질이 순후하여 사람들이 욕심이 적었고 그리하여 그 기를 온전히 함으로써 장수를 누렸으면 후대에는 기질이 부박하여 욕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를 손상시켜 요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기가 이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한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율곡의 비판이다. 즉 사람의 기 우주의 기는 예나 이제나 한결 같은 것이어서 옛사람만 장수하고 이제사람은 요사하여야 한다는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이른바 理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몸이 크고 평안하며 기운이 화평하므로 조화 배양되어 장수를 누리고 하늘의 도움을 받지만, 어질지 못한 사람은 그 정이 방탕하고 온몸이 강건하지 못하므로 바탕 기운을 해쳐 스스로 망치게 되므로 하늘의 책벌을 받아 단명하다는 식의 설명이다. 율곡은 이 설명이 가장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안연같이 선한 사람도

단명하고 도착같이 악한 자가 장수하였으니 하늘이 돕는다거나 벌을 내린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이치만을 떼어내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의 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數氣 理는 그 바탕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 작용은 서로 통하는 것으로서 서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기에는 크고 작음 두터움과 얇음 맑고 흐림 치우치고 바름의 차이가 있다. ‘기의 두터움과 얇음에 따라 길고 짧음이 나뉘이고 기의 맑고 흐림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뉘인다.’<sup>17)</sup> 그런데 기의 청탁과 후박은 반드시 상관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즉 맑은 기가 반드시 두터운 기가 아니며 얇은 기라 하여 반드시 혼탁한 기도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면 요와 순은 맑으면서도 두터운 기운을 지녔고 공자는 맑으나 얇은 기운을 지녔다. 이렇게 본다면 안연은 맑으면서 얇은 기운을 도척은 혼탁하면서 두꺼운 기운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얇은 기는 배양에 의하여 보충이 가능하다. 마치 화로에 있는 형세가 미약한 불이라고 할지라도 밀실에 두고 그 불기운을 잘 보존하면 오래갈 수 있고 들판을 태우는 형세가 왕성한 불일지라도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꺼버릴 수가 있다. 반대로 들판의 불은 그 기운을 돕고 화로의 불은 꺼버린다면 그 현격함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처럼 기는 기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 율곡은 유가의 방식과 여타의 것을 구별한다. 기에 선천적으로 후박이 있어 이것이 장수와 요절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는 보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기의 성쇠가 달라진다. 혈기가 풍족하면 정기가 풍족하여지고 정기가 풍족하여지면 외부 질병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공자가 일찌기 ‘소년시절에는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시절에는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시절에는 탐욕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유가의 導氣法이다. 그러나 보다 유가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도기법은 송대의 유학자들에 의하여 강조된 ‘氣質變化論’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질 변화론은 그 자체

17) 율곡전서 습유 권 5잡저 수요책 “惟人也 受陰陽之正氣者也 其性雖一 而其形氣之稟 或厚或薄或清或濁焉 厚薄者壽短之所以分也 清濁者善惡之所以殊也 均是人也 而其氣 不同則其數亦異也”

의 관심이 기의 청탁에 관한 것이지 후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유가는 기의 후박보다는 청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장수 요절에 대하여는 '死生有命'이라 하였지만, 愚不肖者는 지 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수양을 강조한데서 잘 드러난다. 그렇다고 하여 유가는 기의 후박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맑으면서도 두터운 기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질 변화론이란 수양을 통하여 탁한 기를 맑게, 얇은 기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송유의 기질 변화론은 양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도가의 경우와 달리 그 양기가 이치 즉 道와 義에 의존한다. 율곡은 물질의 氣로써 氣를 기르는 것, 즉 道家에서와 같은 양생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양생만 위주로 하면 오히려 수양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가의 양생이 단지 기로써 기를 기르는 것에 머무는 반면 儒家는 이치로써 기를 기른다. 여기서 이치로써 기를 기른다는 것은 『맹자』에 나오는 이른바 浩然之氣를 곧음(直)으로 기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록 수명의 길고 짧음이 命(數)에 달려있지만 박한 기라도 잘만 배양하면 후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의약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도가에서 말하는 服食은 조금도 이익될 것이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미혹되어 푸닥거리하는 것등의 淫祀는 이치에도 해롭고 기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요컨대 율곡이 지닌 기본 입장은 바르게 하고 못함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바른 이치로써 기운을 잘 길러, 기의 길러지는 바가 그 바름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다.

祈禱: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 빈천까지도 모두 명(수)에 달려 있다는 통속적 관념을 지닌 유가는 기도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천명으로 주어진 것은 비록 성인이라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관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전통속에 천지 신명에게 기도드린 역사적인 사례와 또 그 효험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로 보면 하늘의 소관인 생사 수요에

인간의 힘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이 충돌하는 두 원리를 어찌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위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하늘을 위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천명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집사선생께서 특별히 사생의 이치와 감응의 표현과 그리고 성현의 간혹 기도드리지 않는 것을 들어 배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지극히 합당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니……”<sup>18)</sup>

주공은 그의 선대 삼왕에게 기도드렸다. 공자는 병이 났을 때 제자가 기도드릴 것을 청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한사람은 기도를 드렸고 또한 사람은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율곡은 사람의 삶이란 기운이 모인 것이요, 사람의 죽음이란 기운이 흩어진 것인데 모으지 않아도 스스로 모이고 흐트리지 않아도 스스로 흩어져버리는 것은 바로 하늘이요, 그 정신을 안정하고 그 기운을 양성하여 오랜 후에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운이 흩어져 죽는 것은 이치의 떳떳한 것이요, 흩어져야 할 기운이 흩어지지 않는 것은 이치의 떳떳하지 않은 것인데 혹 정성을 다하여 하늘이 감응하여 기운의 흩어짐이 더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치의 떳떳하지 않음에 속한다고 한다. 수요가 비록 천명에 달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인만큼 전혀 하늘에만 맡겨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엔 옛부터 성현들이 왕과 그 부모의 사랑함이 깊고 사모함이 깊어 혹 병이 나고 혹 임종이 다가온 듯할 때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면서 임금과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것인데 정성이 지극한 나머지 감응을 한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천리의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마땅히 흩어져야 할 기운 가운데 만에 하나 남아있는 기운이 있기에 그만한 정성이 있으면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그만한 기운이 없으면 그 기운이 흩어지고 만다. 기운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천명이

18) 율곡전서 습유 권5 잡저 祈禱策

요, 반드시 다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또한 천명이다. 그 정성이 지극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니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운이 다 흩어지고 남은 기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전혀 효험이 있을 수 없다. 만일 그 기운이 다 흩어져버린 후에도 정성만 지극하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극한 효자를 둔 사람은 장생 불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생불사는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이치에도 어긋난다. 이는 전형적인 기의 상호 감응의 이치에 의한 설명이다.

주공은 기도를 하였고 공자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공자가 이해하는 기도는 개과천선하여 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고, 주공이 드린 기도는 사사롭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공자의 제자는 공자 자신을 위하여 빌라고 한 것이고 공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행위가 천지신명에게 조금도 부끄러울 바가 없다고 보아 세삼스럽게 改過遷善하여 신의 도움을 청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神仙의 문제: 신선사상은 대체로 도가적 전승의 것으로서 일반 민간 신앙에서 그 내용의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율곡의 입장은 거의 전면부정이다.

“자연의 세계는 오직 實理가 지배할 따름입니다. 사람과 만물의 생성은 실리에 의하지 않음이 없으니 실리 이외의 학설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깨닫는 군자의 믿을 만한 바가 아닙니다. 이제 집사 선생이 특별히 신선의 설을 들어서 질문의 발단으로 삼으시니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항상 바른 학문인 유학이 밝지 못하고 사특한 말이 백성을 기만하여 오는 것을 개탄하여 온지 몇 해가 되었으니 감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19)</sup>

그는 신선사상의 출현이 유학의 도가 침체하여 어두워 드러나지 않게 되자 나타난 것이며 불로장생한 사람이 있다고 전하는 말과 기록이 있지만 그런 기록과 구전 자체가 신빙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여 술한 신선 또는 불로 장생과 관련된 기사를 부인한다. 예를 들면 황제가 승천하였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는 후대 사람

19) 율곡전서 습유 권5잡저 神仙策

이 황제의 이름을 빌려 지어낸 것일 따름이라는 것과 丹沙를 연단하면 과연 황금이 되며 또 이를 복용하면 장생의 효과가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이를 복용하였던 사람들이 장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갈증 등에 의하여 요절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각종의 신선 및 이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들은 모두 邪說로서 믿지 못할 것들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유가에서 말하는 장생 불사는 자연의 법도에 따라서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태여 靈丹을 구하려 할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이 할 것에만 힘을 쏟고 하늘이 하는 것은 하늘에 내맡겨 두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이 하는 것만 구하고 인간이 할 일은 소홀히 한다<sup>20)</sup>고 결론짓고 있다. 한마디로 신선등의 사상과 관련된 도가적 행위 일체는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생은 기본적으로 낮과 밤의 이치에 지나지 않음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임을, 기의 모임이 있으면 기의 흩어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사생에 대한 성리학자의 기본입장이다.<sup>21)</sup>

醫藥의 문제: 유학의 관점에서 볼 때 陰陽卜서 占相 그리고 醫方은 비록 잡술에 속하는 것이요, 末技라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오랜 연원을 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그 위세가 약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서 특히 의약의 문제는 유학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강한 영향력과 합리적 원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리철학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의약 책이다. 즉 사람의 기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며 그 후박이 정하여져 있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찌하여 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약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약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가 책문의 물음이다.

율곡은 도는 본디 하나이지만 이로부터 여러가지 해석과 기술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로움을 주는 것도 있고 해로움을 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음양 복서

20) 위와 같은 곳

21) 위와 같은 곳

접상 의방 가운데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인간에 이로움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 의약뿐이라고 하여 의약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타고난 기를 의약으로 다스려 기의 후박을 도울 수는 있으나 낮과 밤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므로 죽음은 의약으로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의약의 한계를 말한 것으로서 우선 도교류의 장생 불사나 신선 사상등의 허황함을 겨냥하여 그 바르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천지간에는 오직 實理만이 있으므로 도교에서 말하는 금단술 등은 전혀 믿을 바가 못된다. 따라서 죽지 않고 오래사는 방도라든가 허물을 벗고 뼈를 바꾸는 것, 대낮에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영단으로 원기를 되돌리는 것, 황금으로 약을 만들거나 이슬을 먹는 등의 방술은 헛된 것들이다. 사람이 장수하거나 요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고, 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병들기 전에 기를 기르고, 병이 든 뒤에는 병을 치료하여 타고난 명을 순하게 받아서 섭생을 잃지 않는 것만이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방도가 된다.

#### IV. 實理와 實心の 만남—자연과 인간의 和諧

이상에 다른 여러 책문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율곡의 기본 입장이 이른바 <실리>와 <실심>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여기서 율곡이 말하는 실리실심은 곧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실리와 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곡의

22) 그는 여러 책문에서 반복하여 實理에 관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大易의 본의는 실리일 따름이고 진실한 이치는 휴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易數策) “대개 천리란 진실무망하고 순선무악한 것이다.”(死生鬼神策) “천지의 이치는 실리일 따름입니다”(神仙策) “천지간에는 실리일 따름입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공격할 것도 없이 저절로 부숴져 버리는 것입니다”(醫藥策) “하늘은 실리로써 화육하는 공을 이루고 사람은 실심으로써 감통하는 효험을 이루는 것이니 실리와 실심이라는 것은 성에 불과합니다.”(誠策)

입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중국철학사에서 진리의 표준으로 설정하여 온 것들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그러면 율곡이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지 그가 실리라고 말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일찌기 목자는 진리의 기준으로 세가지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세계의 표준은 곧 옛 성왕의 일에 근거를 둘 것, 백성들의 이목이 살핀 것에 근거할 것, 국가 백성 인민의 이익에 부합될 것 등인데 이 세가지 기준에 맞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sup>23)</sup> 이는 당시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이 일고 있었기에 이를 분명히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소박한 형태의 경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경험 또는 효험에 부합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진리라고 하였다. “옛날에 대하여 잘 말하는 사람은 오늘에 증험됨이 있게 하고 하늘에 대하여 잘 말하는 자는 인간에 반드시 증험이 있는 자이다. 이론을 말함에 있어 앞뒤 정합성이 있고 또 그 경험과 부합되고 효험이 있음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앉아서 말한 것을 일어나 베풀고 펼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sup>24)</sup>(순자 성악)고 하였다. 양웅은 효험이 없는 것을 말할 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명(幽明) 원근(遠近) 대소(大小) 미저(微著)가 서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sup>25)</sup>는 것이다. 즉 멀리 있는 곳을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그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은미한 세계에 대하여 말한 것이 드러난 세계에서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대의 왕충 또한 효험과 증험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규정하였다.<sup>26)</sup> 송대의 학자들도 다들 진리의 표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단에 대하여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던 이학자들은 유학은 정학이요 진리이며 이단은 사설이고 비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sup>27)</sup> 장재는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지만 여러 사람

23) 墨經 非命 上 참조

24) 순子 性惡편 참조

25) 太玄經 法言

26) 王充 論衡 知實편 및 薄葬편 참조

27) 近思錄의 辨異端類편 참조

이 보고 들은 것은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울고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내용과 같을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공동의 견문을 진리의 한 표준으로 삼았다.<sup>28)</sup> 주희는 내외가 하나되는 경지를 진리의 경지로 이해한다. 여기서 내외라 함은 마음이 지닌 이치와 외부사물이 지닌 이치가 상응 상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치는 본디 하나이니 서로 부합될 수 있다. 마음과 이치의 하나됨(心與理一)이 주희 철학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였다. 이것은 그대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율곡이 말하는 實理와 實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그의 성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을 가리켜 ‘망령됨이 없음’(无妄)과 ‘스스로 속이지 않음’(不欺)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망령됨이 없다 함은 바로 이치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속이지 않음이라 한 것은 마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sup>29)</sup> 즉 무망은 實理를, 불기는 實心을 풀이한 말이다. 실리는 천도로서의 성이고 실심은 인도로서의 성이다. 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글자 그대로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는 다만 성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주변개념을 통하여 그리고 성의 효과로 규정된 것을 통하여 짐작할 따름이다. 율곡의 언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실하여 무망한 것은 이치의 본연이요, 그 무망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속이지 않는 마음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다’

‘誠의 체는 지극히 은미하고 오묘하며 그 용은 지극히 현저하고 넓어 만물의 체가 되고 사물의 중시가 되는 것이다.’

‘元亨利貞은 하늘의 誠이요, 仁義禮智는 인간의 誠이다.’

‘성인은 이 誠을 그의 본성으로 한 사람이요, 군자는 잃었던 이 誠을 되찾은 사람이다.’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그 만물의 화육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모두 지성의 소치이다’

‘하늘은 實理로써 화육하는 공을 이루고 사람은 實心으로써 감통하는 효험을

28) 正蒙 動物편

29) 율곡전서 권6잡저 誠策 참조

이루는 것이니 실리와 실심은 성에 불과하다’

‘진실함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응도 얕고 깊음이 있는 것이니 귀신의 감응에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는가? 혹 얕거나 깊거나 감응하는 것은 모두 이치의 덧덧함(常)이요, 혹 감응하지 않는 것은 이치의 특수한 경우(變)이다’

‘理와 氣가 이 誠이 없으면 같이 운행할 수 없고 사계절 또한 이 성이 없으면 서로 번갈아 운행할 수 없으며, 해와 달도 이로 인하여 빛을 발하고 산악도 이로 인하여 높고 강과 바다도 이로 인하여 깊은 것이니 그래서 성이 아니면 사물이 없다고 한다<sup>30)</sup>

여기서 우리는 誠을 실리와 실심이라 하여 ‘實’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조화 감응의 효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은 우주의 조화와 인간에 의한 감화 감응을 그 효험으로 한다. 조화와 감응의 효험이 있다는 점에서 ‘實’理요 ‘實’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지의 조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인간의 지성에 의한 감화 감응은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맹자에 성인은 ‘지나는 곳마다 감화가 일어나고 머무는 곳마다 신통의 묘가 나타나 위 아래 천지와 더불어 함께 유행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성인은 천하에 감응시키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인데 실제로는 감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 까닭은 어디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율곡은 ‘봄의 화창한 기운도 얼음을 저장한 곳에는 미치지 못하고 해와 달의 밝은 빛도 덮어 놓은 동이 밑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이 아무리 탁월한 성인의 교화라도 어리석은 사람(下愚)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세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율곡은 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으로 덕과 지위를 든다. 즉 성인의 덕과 제왕 및 스승의 지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감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밖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피감화자의 자발적인 동기이다. 아무리 성인의 덕과 제왕 스승의 지위를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할까 어찌할까’하는 자포자기의 사람에 대하여는 도무지 어찌하여볼 도리가 없다는 말과 같은

30) 이상은 모두 그의 誠策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것이다.

이치상 납득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일은 통상 命으로 인식되어 왔다. 공자와 같이 큰 덕을 지닌 자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도를 행하려고 하였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아니한 것, 안연같은 사람이 일찍 죽는 것등이 모두 명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비록 명이라는 관념을 내세우지는 아니하였으나 역시 命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치의 몇몇한 것은 현인이라도 감응시킬 수 있지만 이치의 특수한 경우는 성인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하였는데도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감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이치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sup>31)</sup>

이는 아무리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하늘의 뜻으로 돌리고 사람의 할일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 V. 맺는 말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곡의 책문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통 유학의 입장, 성리철학적인 시각에서 자연현상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속설 신앙으로 전하여오는 여러가지 형태의 천인관계론 특히 도가적 사유 체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유학의 영역 안에 있는 한대 이래의 천인상응설에 대한 이기철학적인 설명의 틀등을 비교적 정치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또한 당시 사상계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에서 그의 자연관을 천도론의 실리자연관이라고 하였다. 그는 되풀이하여 천도는 실리일 따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수요 기도 의약등에 관한 그의 사상은 실심의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에 관한 문제들이 인

31) 율곡전서 습유 권6 誠策

간이 천도에 부합할 것을 회구하는 내용들인데 이에 실심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를 “實”이라고 규정하는 의미는 여전히 애매한 채로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뜻하는 “實”의 내용이 『중용』에서 잘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징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된 이치-실리는 허망하지 않은 것, 效驗(효용성)과 證驗(검증성)이 있는 이치라고 할 수 있고, 참된 마음-실심이라 함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지 않는 마음이다. 易數 天道 節序는 그대로 實理의 유행이요, 壽夭 醫藥 祈禱 神仙등의 사상에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요소가 많다고 보아 實心으로 임하여야한다는 것이 바로 율곡의 입장이다. 그의 철학에서 실리와 실심은 그대로 성이다. 이는 성리학에서 마음과 이치의 논리적 틀로 그대로 설명되는 부분이다.